

변우혁, '간결함'으로 타율·홈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변우혁이 '간결함'으로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변우혁에게 올 시즌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한화 이글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새 팀에서 어필 무대를 펼쳤다.

2019년 한화에서 프로 생활을 지난해 50경기 출전에 그쳤던 변우혁은 올 시즌 KIA에서 83경기에 나왔다. 타율은 0.225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26타석에서 7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기대했던 힘을 보여줬다.

장점은 어필했지만 변우혁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이었다.

변우혁은 "기록 이런 것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타율도 부족했고 타석 수 대비 홈런이 많이 나왔지만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을 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삼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삼진은 크게 상관 없는데 조금 더 득점권 상황에서 잘 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록은 아쉽지만 경험을 쌓은 것은 가장 큰 소득이다.

변우혁은 "전체적으로 기록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신은 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수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 덜 조금해할 것 같고, 삼진도 덜 먹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확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간결함'에 신경 쓰고 있다.

변우혁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다. 스윙 자체를 간결하게 하면서 컨택을 신경 쓰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타율도 나올 것이다. 타율이 더 나와야 기회를 많이 받고, 기회를 받아야 홈런이 더 많이 나

스윙 간결하게 하고 컨택에 신경

몸 스피드 끌어올리는 운동 계획

수비의 키워드는 '안정감'에 주력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올 시즌 가볍게 쳤을 때 넘어가는 게 많았다. 한 번씩 안 좋을 때보면 힘만 쥐서 세계 돌리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막상 홈런 칠 때는 앞에 놓고 가볍게 치자라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간결함'으로 타율과 홈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고하는 그는 캠프 이후 구상도 끝냈다.

변우혁은 "마무리캠프 끝나고는 센터 다니면서 몸의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배트 스피드가 느린 편이다. 스윙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며 "웨이트도 많이 하려고 하다. 성범이 형과 웨이트를 했었는데 내가 못 들었던 무게를 들어보니까 재미가 생겼다. 캠프에서는 기술 훈련량이 많으니까 12월에는 고강도로 웨이트 훈련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수비의 키워드는 '안정감'이다.

변우혁은 "수비에서 안정감이 있어야 경기를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고 있다. 놓치더라도 앞에 떨어트리려고 한다. 뒤로 안 빠트리려고 신경 쓰고 다리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며 "타격은 많이 어려운데, 수비는 확실히 많이 하려면. 박기남 수비 코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도 나와 잘 맞는다. 수비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드 당시 '부상' 이슈가 있었던 만큼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변우혁은 '이상 무'라고 말한다.

변우혁은 "허리 디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다. 지난해에는 하체 쪽이 저리고 당기는 근육 문제로 재활했었다. 디스크 증상이지만 문제가 심하지 않다. 올 시즌 매일 치료하고 보강 운동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KIA 변우혁이 오키나와 킨 구장 실내 연습장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있다.

하면서 괜찮았다. 관리만 하면 올해처럼 허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올 시즌 잔부상은 아쉬웠다. 하필 피스가 떨어졌을 때 다치면서 회복하는 데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 이어 "찬호 형이 '우리 몸은 약하지 않다'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때 정신 차렸다. 나약해졌던 것 같은데 찬호 형 말 듣고 조금 안 좋더라도 버티어야 하

고, 참고 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캠프에서 목표한 것들 몸에 잘 배도록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투수 이형범·내야수 고명성 영입

2024 KBO 2차 드래프트
 투수 김재열 NC·이태규 KT로
 포수 신범수는 SSG 이적

KIA 타이거즈가 2024 KBO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투수 이형범(부산)과 내야수 고명성(KT)을 영입했다.

유출도 있었다. 투수 김재열과 이태규가 각각 NC와 KT로 이적하고, 포수 신범수는 SSG 유니폼을 입는다.

2차 드래프트가 22일 서울 양재동에서 진행됐다. 이번 드래프트는 정규시즌 종료일 기준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 속선수, 육성 선수, 군보류 선수, 육성 군보류 선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입단 1~3년차, 당해연도 FA, 외국인 선수는 자동

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22명이 팀을 옮기게 됐다.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KIA는 2라운드에서 투수 이형범을 선택했다. 이어 3라운드에서 내야수 고명성의 이름을 불렀다.

2명을 새로 영입했지만 3명이 팀을 떠나게 됐다.

투수 이태규가 2라운드에서 KT의 선택을 받았고, 투수 김재열은 NC의 3라운드 지명 선수가 됐다. 이어 포수 신범수가 SSG의 지명을 받아 팀을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지명은 3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며 하위 3개 구단에는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이 부여됐다. 무더기 유출을 피하기 위해 한 구단에서 지명할 수 있는 선수는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LG·SSG·NC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선수가 다른

구단의 지명을 받았고, KIA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 키움에서는 2명의 선수가 지명됐고, KT·삼성·한화에서는 1명씩 다른 팀의 선택을 받았다.

지명은 2023시즌 순위 역순으로 이뤄졌고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 4라운드 이하 1억원이다.

한편 가장 먼저 지명권을 행사한 키움은 내야수 최주환을 선택했다.

최주환은 2020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부산에서 SK(현 SSG)로 팀을 옮긴 베테랑이다. 23년 원클럽맨인 SSG의 외야수 김강민도 4라운드 22순위로 한화 지명을 받아 팀을 떠나게 됐다. 삼성 베테랑 투수 우규민도 KT가 1라운드 6순위에서 선택했다.

한편 2011~2019년 격년제로 시행했던 2차 드래프트는 2021년 폐지됐다가 2년 만에 부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LIV 골프가 내년 시즌 14개의 대회 중 절반을 미국 밖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널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LIV 골프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18번 홀에서 퍼팅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는 브라이슨 스태보. /연합뉴스

LIV 골프, 내년 시즌 미국 밖에서 7개 대회 개최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LIV 골프의 내년 시즌 일정이 공개됐다.

22일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이 입수한 LIV의 내년 일정에 따르면 LIV는 내년 14개의 대회 중 최소 7개를 미국 밖의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는 6개 대회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했다. 개막전은 2월 2일부터 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멕시코의 엘 카말레온 골프코스에서, 두 번

째 대회는 수퍼볼 기간인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세 번째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3월 1~3일)에서 열리고, 홍콩, 호주, 싱가포르에서 대회가 이어진다.

정규 시즌은 8월 16~18일 그린브라이어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로 막을 내린다.

개인·단체 결승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선수는?

마구마구 리얼글러브 어워드
 양현종·김선빈·이우성·박찬호
 KIA 4명 후보에 올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선수협)가 12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3 마구마구 리얼글러브 어워드'를 진행한다.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최고 수비수를 결정하는 특별한 시상식이다. 선수협은 지난 20일 국내 프로야구선수 약 700여명에게 후보자를 공개한 뒤 22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각 포지션별 최다 이닝 출전선수 5명이 후보가

됐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투수), 김선빈(2루수), 이우성(외야수), 박찬호(유격수) 등 4명이 후보에 포함됐다. 김선빈과 박찬호는 '베스트 키스톤콤비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선수협은 지난해부터 수비의 핵심인 센터라인

최고의 커플을 선정하는 '베스트 키스톤콤비상'과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투수와 포수를 뽑는 '베스트 배터리상'을 도입했다.

또 선수협은 올해부터 '리얼글러브 투수상'을 '선발 투수상'과 '구원 투수상'으로 세분화해 시상한다.

KT 고영표, 키움 김해성 한화 노시환, 부산 양의지, LG 홍창기는 '올해의 선수' 수상을 노린다. '올해의 선수'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상위 5명을 대상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김현수 선수협 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동료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해 각 부문 최고의 수비 능력을 보여준 선수를 뽑는다는 점에서 선수협 시상식은 특별하다. 수상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시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